

조선왕조실록의 한 여진족 추장 인명의 표기에 대하여

On a Name of Jurche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 this paper a transcription of the name of Jurchen Chief is discussed. All proper names of the Jurchens including personal names in the Annals are recorded in Chinese Characters. Most of them are recorded according to the sounds. But the name of one Chief was recorded according to the meaning. At the first time his identity was confusing to Korean as his name was called differently. Among them there were “hahili(何叱耳), hago(夏古)” in Korean pronunciation. But this transcription is read as 'Hashū', the meaning of which is "left handed" in Jurchen(Manchu). This paper deals with the transcription of these names and others.

조선왕조 전반기 즉 17세기까지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진족에 대한 기록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난다. 그들은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늘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진족은 한 무리의 씨족이 아니라 여러 족류가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관계나 신분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기록 가운데에서 매우 특이한 표기로 그 인명이 기록된 한 여진족 추장의 인명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 추장의 이름은 하질이(何叱耳)이다. 이는 만주어 /hashū/를 표기한 것인데 본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표기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홀온 추장의 이름

16세기말 17세기 초에 이르러 여진족은 건주여진(建州女眞)과 해서여진(海西女眞)으로 세력이 개편되는데 해서여진은 호룬(扈倫)사부로 불리는 하다(哈達), 호이파(輝發), 올라(兀羅), 여허(葉赫)의 네 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올라는 조선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풍문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
홀라온(忽刺溫) 또는 홀온 즉 올라의 한 주장에 대한 기록이다.

홀라온(忽刺溫)의 주장은 이름은 **하질이(何叱耳)**라 하는데
부자타(浮者他)의 아들이며 소라적(小羅赤)의 사위이다. 하였습니다.
<선조 36/09/03, 1603>

상이 이르기를, 적추(賊酋)의 이름을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하고(夏古)**는 소추(小酋)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 때부터 서북방을 중시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일
것인데, 조종조 때는 이와 같은 강로(強虜)가 없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 적을 가장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른바 배반은 더디나
화는 크다. 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만일 서북방에서 동시에 도발해와
우리의 힘이 분산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노추(老酋)가 언제 갑자기 도발할지 알 수 없고 **하고이(夏古伊)**의
흥모도 예측하기 어려우니, 이 적들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선조 38/08/04, 1605년>

그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질이(何叱耳)

선조 36년(1603) 1회

선조 38년(1605) 9회

아질이(阿叱耳)

선조 36년~40년 각 1회

하고(夏古)~하고이(夏古伊)

선조 38년 1회

그러나 정작 그의 본명은 부자태인데 이미 10년 전에 임금에게 보고된 바 있다
(申忠一의 보고).

올라부락(兀刺部落)의 새로 항복한 장수 부자태(夫者太)가 일어나 춤을 추었고, 노추도 문득 의자에서 내려와 비파를 튕기면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선조 29/01/30, 1596>

여허(如許)의 주장(酋長)인 부자(夫者)와 나리(羅里) 형제가 노추의 강성을 걱정할 끝에 몽고왕 나팔(刺八)과 올라(兀刺)의 주장 부자태(夫者太) 등의 군사를 청하여 계사년(1593) 9 월에 내침하였는데, 노추가 군사를 거느리고 허제(虛諸) 부락을 에워싸고 싸워 여허(如許)의 군사를 대패시켰으므로 부자는 전사하고 나리는 도주하였으며, 부자태는 투항하였으므로 노획한 인축(人畜)과 갑주(甲冑)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선조 29/01/30, 1596>

부자태가 투항한 후 그 형 만태(晩太)가 말 1 백 필로 아우를 속신(贖身)하였으나 노추가 허락하지 않아 만태 역시 투속되었다고 합니다. 부자태가 노추의 성중에 와 있는 지 3 년 만에 20 여 명의 가족 모두를 12 월 보름 전에 비로소 데려 왔다고 합니다. <선조 29/01/30, 1596>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데 하질이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라는 사실이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는 호기를 부리는 말입니다. 또 이 호인은 왕태(王太)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질이란 것은 호인의 본명(本名)이 아니라 곧 좌궁(左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복장태(卜章台)인데 형인 복안태(卜安台)가 죽은 후 그 아들이 항상 장태가 부귀를 누리지 못할 것을 비웃자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복안태의 딸이 노가적(老可赤)의 아내가 되어 일가(一家)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선조 38/11/03, 1605>

그리고 다음의 기사도 같은 인물을 지칭한다.

노추(老酋)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북변(北邊) 번호(蕃胡)가 말하기를 홀온주(忽溫酋)의 이름은 부자탁고(夫者卓古)인데, 부자한고(夫者漢古)라고 칭하기도 하고 탁고(卓古)나 한고(漢古)라고만 칭하기도 한다. [탁(卓)과 한(漢) 두 음(音)은 호인의 전한 말이 서로 같지 않아서 그러한 듯하다.] 나이는 40 세쯤 되었고 몸은 보통이고 얼굴은 약간 얼었는데, 사납고 응맹스럽기가 비길 데 없다. 노 소추(老少酋), 나리(羅里) 등과 항시 사신을 통하여 호의를 다졌고, 두 딸을 아내로 주었다. 탁고와 나리는 거주지가 가깝고 원래 4 촌 형제 간으로 친분이 가장 두텁다. <선조 38/07/16, 1605>

한편 만주인의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Bujatai 로 나타난다.

Muse tuttu ujifi ula i gurun de unggifi ejen obuha niyalma kai,
ere bujantai musei gala ci tucike niyalma kai, jalan
goidahakubi.(滿文老檔 太祖 1607년 3월)

(우리가 그렇게 올라국으로 보내어 왕이 된 사람이다. 이 부잔타이가 우리
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이상에서 보면 이 주장의 이름은 부자태(夫者太) 또는 복장태(卜章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의 행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593년 소라적(老可赤의 동생)에게 항복
- 1596년 석방된 후 올라부로 돌아감. 소라적의 딸과 결혼
- 1603~1605 <실록 보고 시점>
- 1613년 올라부가 망한 후에 여허부(葉赫部)로 감
- 1619년 여허부 멸망, 건주여진이 해서여진 통일

2. 하질이(何叱耳)에 대한 풀이

그러면 左弓과 하질이(何叱耳)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 잠시 오른쪽과 왼쪽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¹

¹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2)

오른 쪽: 북쪽을 향한 때의 동쪽과 같게 된 쪽

왼 쪽: 북쪽을 향한 때의 서쪽과 같게 된 쪽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두산동아, 2000)

오른 쪽: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동쪽과 같은 쪽

왼 쪽: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서쪽과 같은 쪽

조선말 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오른 쪽: 북쪽을 향한 때의 동쪽과 같은 쪽

왼 쪽: 북쪽을 향한 때의 서쪽과 같은 쪽

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馆, 1979)

右: 面向南时靠西的一边

左: 面向南时靠东的一边

広辞苑(岩波書店, 第3版, 1986)

左: 南を向いたとき `東にあたる方

右: 南を向いたとき `西にあたる方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3rd ed. Macmillan, 1996)

이에 비해서 세계 최초의 자국어-자국어 풀이 사전인 御製清文鑑(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1708 序)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오른 쪽 ice : jebele(箭袋, 撒袋) ergi be. ici ergi sembi

왼 쪽 hashū : dashūwan(弓袋) ergi be. hashū ergi sembi

左弓이라는 것은 왼손으로 활을 쏜다는 것인데 실제로 왼손잡이(左手射) 라는 단어는 hasutai 이다.

하질이(何叱耳)는 hashū 또는 hasutai 중에서 hashū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진족의 이름은 거의 예외 없이 音借 표기로 한다. 다음은 그 중의 한 예이다.

老可赤, 奴可赤, 老加赤, 老羅赤, 奴兒合赤, 奴兒哈赤, 盧兒哈赤, 老乙可赤

그런데 이 예는 보기 드문 音借와 訓借가 섞인 표기이다. 위에서 보듯이 하질이(何叱耳)는 左弓 즉 /hashū/라는 만주말을 표기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何	ha
叱	s
耳	hū

right: designating or of that side of one's body which is toward the east when one faces north, the side of the more-used hand in most people

left: designating or of that side of one's body which is toward the west when one faces north, the side of the less-used hand in most people

여기에서 何 ha 와 叱 s 의 대응은 문제가 없다. 다만 耳 hū 의 대응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주어 음운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耳]는 [귀] 즉 /kuj/이므로 [何叱耳]라는 표기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hasguj, haskuj/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주어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보인다.

만주어 실록 표기

ha ha(何)

s s(叱)

hū guj(耳)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h 와 g 의 대응은 만주어가 기록되기 시작한 초기 자료에서부터 보이는 현상(성백인 1990: 40-55)으로 아마도 /h/와 /g/가 자유 교체하는 방언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h/의 변이음이 []로 실현된 것을 [g]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2) hū guj 의 대응은 자음, 모음 차이는 놓아 두고라도 어말에 반모음 /j/가 붙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반모음 /j/가 덧붙는 현상도 만주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김주원 이동은 2004: 52 참고).

야인(野人)들이 구멍[孔]을 쌍포(雙浦) 라고 부르는데, 이 땅이 일찍이 야인에게 점거당한 바가 되었으므로, 지금 그대로 이름한 것이다.<세종 155 지리지>

滿 sangga, (어제증정청문감 2:36b, 한청문감 1:40b) 窟窿 통칭 구무

이는 합개 합浦(龍飛御天歌 一 49) 에서 보듯이 gai 를 한자 浦 로 표기한 것이다. 유사한 예로 18 세기에 愁州(지금의 함경북도 鐘城)에서 기록된 [淸學音]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 발견된다.

朝鮮 솔괴, 솔고 靈古塔 닝구태

한편 여진족의 인명을 표기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j/첨가 자료가 빈번하게 발견된다(졸저 2008).

阿亡哈 ~ 阿亡介, 羅郎可 ~ 羅郎介

한편 아래의 이표기는 만주어 음운사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하고(夏古)~하고이(夏古伊)

즉 위에서 본대로 모음이 /우/가 아니고 /오/인 점에서 특이하다. 이는 만주어의 /ū/모음의 음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ū/는 한국인에게는 [우]로도 들릴 수 있고 [오]로도 들릴 수 있는 소리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만주어뿐만 아니라 몽골어 청취 자료를 포함하여 매우 풍부한 자료가 있다(졸고 1990)

한편 하고(夏古) 는 /ㅅ/을 생략하고 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질이(阿叱耳) 는 何叱耳 와 비교해 볼 때 글자의 유사성으로 인한 표기의 오류로 볼 수 있다.

3. 맺음말

이상에서 여진족의 한 추장의 인명 표기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질이(何叱耳), 아질이(阿叱耳), 하고(夏古), 하고이(夏古伊)

부자태(夫者太), 복장태(卜章台), 부자탁고(夫者卓古), 부자한고(夫者漢古)

하질이(何叱耳) 등은 만주어의 왼쪽을 뜻하는 hashū 를 표기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김주원(1990), 만주어 모음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 1-25, 한국알타이학회.
- 김주원(2008),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주원 이동은(200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女眞語 滿洲語구스어, 알타이학보 14:43-64.
- 성백인(1990),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알타이학보 2: 27-69, 한국알타이학회.
- 滿文老档研究會(1955), 滿文老档 I 太祖 1, 東京:東洋文庫.